

澗(肝)月寺址 調査概要

文 明 大

一 머리말

東國大學校 博物館에서 지난 一九六八年부터 울산지구 佛蹟調査를 실시한 적이 있다. 조사가 거의 끝날 무렵인 一九七〇년 一二월 一二七일부터 一九九일까지 여기서 보고하고자 하는 澗(肝)月寺址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 寺址는 그 형태가 대체적으로 잘 남아 있고, 여러가지 유물들도 잘 보존되고 있어서 크게 주목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金堂址나 塔은 거의 復原할 가능성도 있어서 古代佛敎美術研究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여러가지 石材들이 더러 깨뜨러지기도 하고 집어가 버리기도 한 점이다. 가령 金堂址의 받주인인 金正斗씨(當時 四八世)의 말에 의하면 인양 읍내에 있는 華藏寺에서 여기의 石材들을 옮겨갔다고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화장사를 조사했을 때는 옮겨갔다고 생각되는 그럴듯한 石材들을 찾지 못했는데 이런 傳言은 꼭 믿을 수 없는 점도 물론 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 사지의 현황과 金堂址와 塔을 調査한 결과들 간략히 살펴 보고자 한다.

二 寺址現況

옛 澗(肝)月寺는 없어지고 터만 남은 셈이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寺 중심지보다 한단 아래에 조그마한 암자가 세워져 法燈은 겨우 지켜지고

있다. 이 암자의 法堂에는 寶物 三七〇호로 지정된 石造如來坐像(원래 金堂址에 있었던) 봉안하고 있으며, 뜰에는 목이 부러진 石造如來坐像이 있다.

이 암자 바로 뒷편에는 원래의 사지가 남아 있다. 현재 金堂址는 거의 완전히 남아 있으며 이 앞에는 양쪽으로 석탑이 무너진 채로 흩어져 있다. 塔前面은 바로 築臺인데, 이 축대는 原形이 꽤 남아 있는 셈이다. 금당지 뒷편도 建物址가 있었던 것 같지만 원래의 모습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형편이다. 말하자면 규모가 작은 아담한 山地伽藍의 대표적인 예로 생각되며, 寺址가 비교적 파괴되지 않은 절터라 하겠다. 이 澗月寺에 대해서는 丁時翰先生의 山中日記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있어서 확실한 關係知見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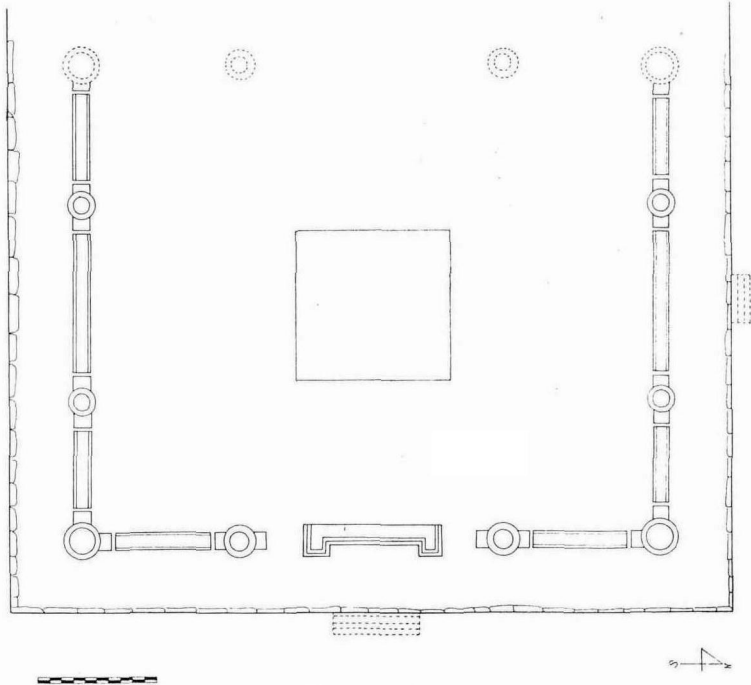
三 金堂址

金堂址는 현재 基壇을 잘 구별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주춧돌(柱礎石)이 거의 완전히 남아 있고, 長臺石, 下枋石, 佛臺下段등이 그대로 있어서 保存狀態가 매우 좋은 편이다.

基壇部는 아마도 現狀變更이 된 것 같고 또한 많이 묻혀 있는 형편이어서 發掘을 해야만 정확한 형태를 알 것 같다. 현재는 여러가지 石造物 가령 기단석이나 장대석, 또는 여러가지 돌들을 모아 쌓아서 한 段을 구별하고 있다. 正面과 下右側面의 중앙에는 階段의 遺構가 보이고 있다.

礎石은 현재 後陳(가장 뒷쪽 列)의 것들이 묻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여 잘 알 수 없을뿐 거의 완전히 남아 있다. 동근형의 주춧돌 二段으로 단을 지게 한 것인데, 통일신라시대에 보편적으로 쓰이던 형식이다. 벽 밑인 건물外廊의 礎石 사이에는 長臺石(枋石)들이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은 이가 맞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정연하게 놓였다. 正面(道里間)의 중앙간(御間)에는 下枋石이 놓였는데 三段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있다.

正面(道里間)과 側面(裸間)은 모두 三間으로 말하자면 三간 집이다. 크기는 正面이 九七〇cm, 側面이 八〇〇cm로써 側面이 正面보다 一七〇cm가 작은 長方形建物이다.



澗(肝)月寺址

정면은 중앙간(御間)이 四四二cm이고 양가간(左右間||退間)은 각각 二六五cm이며 측면은 중앙간(御間)이 三三〇cm 양가간(左右間)이 二三三cm인데 초석간의 크기도 비교적 작은 편이다.

四石塔

현재 석탑은 金堂의 前面 左右에 무너져 있는데 땅에 묻히기도 하고 깨트러지기도 하여 완전히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주위를 발굴한다면 좀더 많은 塔材들을 수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復原도 可能할 것 같다.

가 右便塔

돌들이 동그렇게 쌓여 있는데 塔材들이 다른 돌들과 섞여 있다.

① 基壇石·基壇石들은 깨어진 채로 몇 점이 남아 있다. 발굴해 본다면 대체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② 第一塔身·第一塔身으로 추정되는 塔身은 완전히 남아 있고 보존 상태도 가장 좋은 편이다.

各面の 중앙에는 문형태(門扉)가 새겨졌는데 三단으로 턱을 지면서 파고 중앙에는 鬼面장식(二面)의 문고리를 묘사하고 있다. 이 좌우로 仁王像(高七五cm)이 서 있는데 주먹으로 칠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動的이다. 뒷면에는 舍利孔이 있는데 크기는 二四×二四cm의 正方形孔이며 깊이는 十六cm이다. 塔身크기는 높이가 一一二cm, 幅이 각각 一三四cm내외이다.

③ 屋蓋石(一)

屋蓋石은 현재 3점이 모두 남아 있다. 이 옥개석은 가장 큰 것이어서 어쩌면 第一屋蓋石이 아닌가 추정된다. 지붕인 뒷부분만 보이고 받침은 파문혀 있어서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크기는 三三三cm×三三三cm의 꽤 큰 옥개석이다.

④ 屋蓋石(二)

이 옥개석 역시 지붕만 보이고 받침은 파문혀 있다. 뒷부분은 二단의 턱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붕의 곡선은 완만한 편이다. 크기는 一九七cm×一九七cm이다.

⑤ 屋蓋石(三)

이것은 일부분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데 뒤집어져 있어서 받

침을 알 수 있는데 四단받침이다.

크기를 알 수 없어서 앞의 것이 二층인지 이것이 二층 옥개석인지 명
확히 알 수 없다.

나 左便塔

第一塔身 이하는 거의 문혀있는 것 같고 현재 노출된 것은 第一塔身
과 屋蓋石 二점이다.

① 第一塔身

이 탑신은 아랫부분이 문혀 있는데 깨어지지는 않았다. 크거나 형태
는 右便塔의 것과 흡사하지만 문안에 鬼面장식이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를 뿐이다.

② 屋蓋石(一)

이 옥개석은 右塔屋蓋石(二)보다는 약간 크고 右 옥개석(一)보다는 작
아서 이것이 어찌면 第二 옥개석이 아닌가 싶다. 크기는 一一〇×二二〇

cm이다. 역시 윗부분만 보일 뿐이다.

③ 屋蓋石(二)

이것은 옥개석의 1/4인 것 같다. 역시 윗부분만 보이는데 여기에는
서로 장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다. 二개가 있다.

이들 탑의 建立年代는 塔樣式으로 보아 九세기 前期로 보면 어떨까
싶다.

五 맺는 말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폈다시피 이 潤月寺址는 매우 작은 규모의 사찰
이었지만 金堂址가 정연하게 남아 있는 점이 라던지 仁王像이 조각된 매
우 귀중한 塔이 그대로 어느정도 復原可能한 점이 라던지 또는 九세기
石造如來坐像이 남아 있는 점 등으로 아마도 손꼽힐만한 중요한 佛蹟으
로 생각된다. 앞으로 좀더 철저한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 조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두는 바이다.

(東國大學校 助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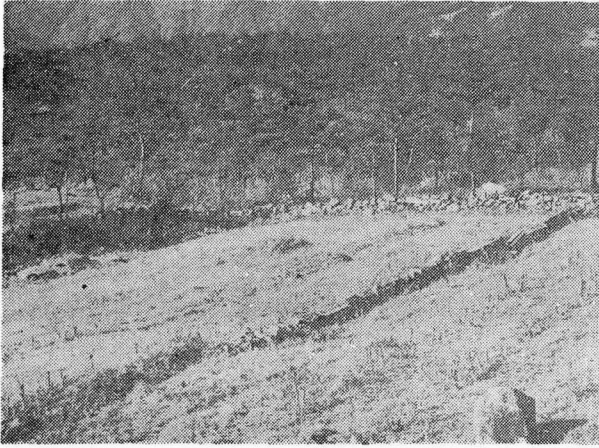


圖 1 金堂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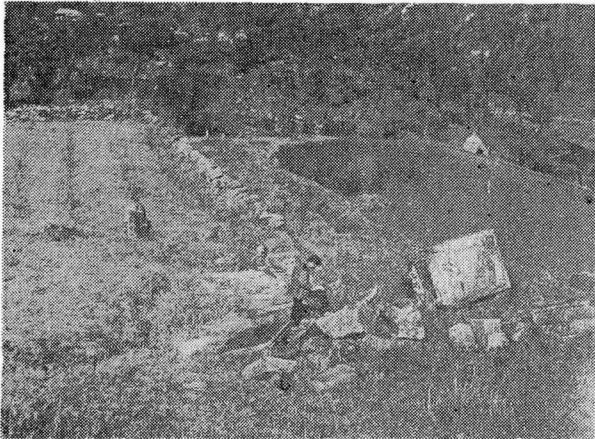


圖 2 石塔遠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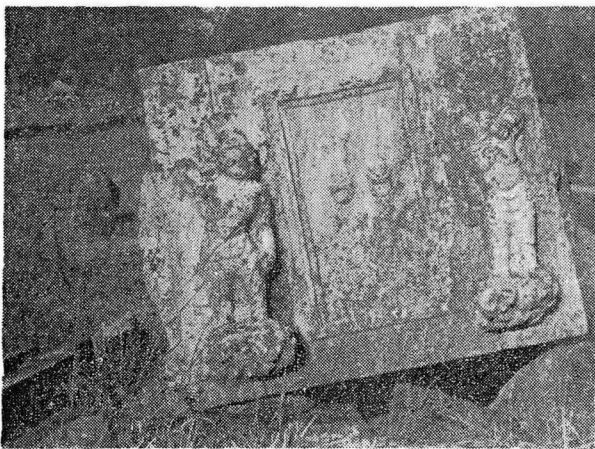


圖 3 南塔一層塔身